

한국합섬, 구미공장 760명 전면파업

동국무역 · 코오롱도 임금단체협상 진통 ... 구조조정 추진 결사반대

코오롱에 이어 한국합섬이 노조 파업으로 공장가동이 중지되는 등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학섬유 생산기업들이 임금단체협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합섬은 6월24일 노조의 파업으로 구미공장의 조업이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Polyester 원사 등을 생산하는 한국합섬의 구미공장은 생산직 근로자 760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과 5%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6월23일부터 전면파업을 시작했다.

앞서 코오롱 구미공장 노동조합도 Polyester 원사 생산설비 철수 등 회사 측이 추진중인 구조조정에 반발해 6월23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는 전체 공장 근로자 1430명 중 주요 설비가동 필수 인력을 제외한 1200명이 참가했으며 이에 따라 공장 가동이 대부분 중단됐다.

코오롱 노사는 하루 60톤 생산규모의 노후한 Polyester 원사 생산설비 철수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으며, 노조는 6월14-15일 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코오롱 측은 설비 철수로 발생하는 약 190명의 유휴인력을 여타 설비로 전환 배치해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신규 투자할 공장을 우선 건설해 인력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금 6% 인상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동국무역의 방적부문 근로자 350여명도 회사 측에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며 5월부터 식발 투쟁에 들어갔다.

<화학저널 2004/06/25>